

닛신보의 섬유제품 통판사업 - 흑자체질 정착

닛신보의 섬유제품 통판판매사업은, 1988년에 “콤포트 프로포잘(Comfort Proposal)”이라는 제명(題名)의 카탈로그로 통판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01년도에 당기손익(當期損益)단계에서 통판사업이 흑자를 내기 시작한 후로 계속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2003년도에도 흑자를 냈다.

통판사업의 판매고는 1998년까지 10년간 계속 확대되어 연간 18억~19억엔의 사업으로 성장하였다. 그 후로는 약간의 증감(增減)을 거듭하면서 조금씩 증가하여 2002년도에는 20억엔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통판판매사업을 시작한 이래 15년이 된 2003년부터는 일본에서 생산된 천으로 일본내에서 봉제한 주요 섬유제품을 수록하는 카탈로그를 격월간(隔月刊)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발행부수는 매년 12만~18만부가 된다. 2003년도의 판매실적은 전년도보다도 10%의 증가를 목표로 정하였는데, 날씨가 불순하여 상반기 판매고가 목표에 약간 미달하여 목표달성이 쉽지 않게 되었으나, 하반기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연간 판매실적”으로는 전년도보다도 증가한 실적을 올려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